

삼성전자, LCD 특허 침해로 피소

AU옵트로닉스, AT&T와 함께 미국에 ... 삼성전자 소송 대응인 듯

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타이완의 액정표시장치(LCD) 생산기업 AU옵트로닉스로부터 6월27일(현지시각) 피소됐다.

AU옵트로닉스는 자사 기술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LCD제품을 생산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미국 무선통신기업 AT&T를 델라웨어 월밍턴의 연방법원에 고소했다.

AU는 소장에서 삼성전자와 AT&T가 TV와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평면패널 디스플레이 관련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.

삼성전자와 AT&T의 대변인은 AU옵트로닉스의 고소와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다.

삼성전자는 6월 초 AU옵트로닉스 등 4사가 LCD 패널 및 모듈 관련특허를 침해했다며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.

미국 특허정보서비스기업 IFI 클레임즈 페이턴트 서비스에 따르면, 삼성전자는 2010년 미국에서 IBM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특허를 취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6/28>